

문재인, 대선 행보 본격화... 손학규, 정계복귀 신호탄

목포 DJ서거 7주기 추모행사 野 거물들 '한자리'

야권의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대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목포에서 조우했다.

이들은 이날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평화콘서트 행사에 참석해 'DJ정신' 계승을 내세우면서 호남민심 구애경쟁을 벌였다. 세 사람 모두 제각각 처한 정치적 상황은 다르지만, 저마다 야권의 전통적 지역기반인 호남의 적자로 인정받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이들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도 감지됐다. 문 전 대표는 허말라야 트레킹을 위해 네발에 다녀온 후 첫 공개일정으로 이날 행사를 택했다. 문 전 대표는 "김 전 대통령이 떠나시기 전 피를 토하며 한 말씀, 유언이 됐던 당부를 잊을 수 없다. 평생 몸부림치 이룬 민주주의가 이명박 정부에서 처참히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꿈을 꾸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든다. 민주주의·경제·남북관계 3대 위기에서 벗어 나려면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어 7일 광양으로 이동, 독립운동가인 매천 황현 선생의 생가를 방문했다. 문 전 대표는 매천아록을 읽은 뒤 매천 선생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김 전 대통령의 행사를 다녀오는 길에 선생의 생

너도 나도 "DJ정신 계승"

박지원 비대위원장 기념사

"행동하는 양심은 사드 반대"

가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 안팎에서는 문 전 대표의 1박2일 호남 행보를 두고 대권도전을 위해 호남민심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안 전 대표의 경우는 이날 행사에 참석하지는 않고 영상메시지를 통해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목포에서 열린 평화콘서트에 영상메시지를 보내 "김 전 대통령이였다면 민중의 현안에 대해 미국을 설득하고 중국의 이해를 구하면서 한국을 동북아 평화의 디딤돌로 만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역시 호남민심 끌어안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박 비대위원장은 기념사에서 "김 전 대통령이 생존해 계셨다면 사드에 찬성했느냐"면서 "이 시대의 행동하는 양심은 사드배치에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사드문제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보이며 찬반 입장을 정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비판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손 전 대표는 축사도 하지 않고 자리 배치도 맨 앞줄이 아닌 중간을 택하는 등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참석자들이 이름을 연호할 때에는 일어나서 손을 흔드는 등 존중감을 드러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 문 전 대표와 손 전 대표가 지난 2012년 9월 대선 경선 이후 4년 만에 조우해 첫 대화를 나누는 관심을 끌었다.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표는 손 전 대표에게 "요즘 언론에 비치는 모습이 좋아보이더라"면서 "빨리 당에 돌아오셔서 힘을 넣어주시라"고 말했다. 이에 손 전 대표는 문 전 대표의 손을 흔들며 활짝 웃지만 할 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손 전 대표는 행사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정계복귀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고 "김 전 대통령은 5번의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통령까지 되면서 인동조정신을 보여주셨다"며 "우리도 이 위기를 김대중 정신으로 국민의 뜻을 위아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DJ정신'을 강조했다. 손 전 대표는 7일에는 하의도에 있는 김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은 등 1박2일 일정을 소화했다. 당 안팎에서는 9월께 강진에서 하산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손 전 대표가 정계복귀 신호탄으로 호남민심 끌어안기를 택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최권일·이종행기자 cki@/목포=고규석기자 yousou@



4년만의 악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왼쪽)와 손학규 전 상임고문이 6일 오후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서 열린 김대중 평화의밤 콘서트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3파전 압축 더민주 당권 레이스 친문 표심 최대변수

대의원 많은 호남표심 향배 주목 3후보 선명성 경쟁...신경전 가열

朴대통령 주후반 특별사면 단행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경쟁이 예비 경선을 거쳐 김상곤, 이종걸, 추미애 후보(기호순)의 3파전으로 압축된 가운데 친문(친 문재인)과 호남 표심의 향배가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다.

◇친노·친문 표심 향배는? = 친문 표심의 향배는 더민주 당권 경쟁의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앙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친문 표심은 예비 경선에서 송영길 후보에 대한 전략적 견제 흐름 등을 보여 예상 밖의 컷오프 탈락을 만든 주요 요인이 됐다는 평가다. 송 후보 역시 결과를 접하고서 "전략적 배제 등이 고려된 것 같다. (나에 대해서는)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찍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당내 최대계파인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표 역시 추 후보와 송 후보가 나눠 가지리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뚜껑을 열자 다수의 범주류 고정표표를 확보한 추 후보가 안정적으로 통과한 가운데, 이 후보는 비주류 표 집결에 성공한 데 이어 김 후보는 친문 표와 송 후보의 표 일부를

흡수하며 본선 티켓을 거머쥐게 됐다. 결과적으로 친문·범주류의 표는 추 후보와 김 후보로 분산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내에서 김 후보와 비주류인 이 후보 중 한 명이 탈락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송 후보로 향했어야 할 일부 범주류의 표가 '김상곤 구하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당 관계자는 "어차피 송 의원은 컷오프 통과가 확실하니 김 후보를 밀자는 움직임이 나왔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본선 결과도 친문 표심의 영향력 내에 들어있다는 분석이다. 친문 세력의 크게 강화된 더민주의 현실에서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의 입김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대의원(45%)과 권리당원(30%)이 전체 선거인단의 7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선에서 친문 표심이 한 후보에 결집된다면 싱거운 승부가 예상되는 반면, 친문 표심이 분열된다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호남 민심 향배도 주목 = 호남 민심의 향배도 주목된다. 호남은 물론 수도권 등 타 지역의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상당수가 호남 출신이기 때문이다. 특히, 호남 대의원 및 권리당원은 그동안 외부 입김에 좌우되기 보다는 독자적인 판단과 선택에 나서는 성향을 보여 왔다는 점에서 전당의 최대 변수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여기에 호남 출신 대의원과 권리당원은 범주류의 당권 장악에 비판적 시각이 강하고 정권 창출을 위한 야권 통합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점에서 각 후보 진영에서는 친문과 호남 표심을 모두 공략할 수 있는 맞춤형 메시지를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민주의 당권 구도가 어느 한 후보도 월등한 우세를 나타내지 못하는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어 남은 기간 동안 치열한 공방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각종 이슈도 판을 가를 변수로 꼽히고 있다.

◇선명성 경쟁 가열, 흥행 불분나 = 이 제정 더민주의 당권레이스는 흥행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이제는 후보들의 격돌

이 거세지면서 흥행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예비경선은 363명이라는 제한된 선거인단으로 치러져 후보들도 '팬클럽' 집중을 하며 조용히 움직였지만, 본선 선거인단은 수만 명이 넘기 때문에 후보들은 토론회 등에서의 메시지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각종 현안을 둘러싼 후보들간 공방이 격해질 수 있고, 사소한 말실수 하나가 전세를 완전히 뒤바꾸는 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온라인 입당을 통해 유입된 10만여명의 당원 중 3만~4만명이 권리당원 자격으로 경선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의 표심을 의식한 선명성 경쟁도 격해질 전망이다.

예비경선 순위표가 배일 속에 가려지면서 7일 각 진영간 신경전도 거세졌다. 김상곤 후보는 자신이 1위, 이종걸·추미애 후보가 박병의 근소한 차이로 2,3위를 차지했다는 전날 한 종편 보도를 인용,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제가 예비경선 1위로 통과했다는 기사가 났네요. 평당원의 혁명으로 정권교체 꼭 이루어질 것"이라

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세론 형성을 시도 해온 추미애 후보측은 즉각 반발했다.

추 후보 측 대변인인 김광진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앙선관위에는 어제 보도와 관련해 공식입장을 발표해줄 것을 요구한다"면서 "혼선을 바로잡기 위해 예비경선 결과를 차라리 공개해 달라"고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후보 측 역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면서도 각종 순위와 관련된 설들이 예상을 넘어선 '선방'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모습이었다.

◇대선 후보 조기선출 =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본선에 오른 당권 주자들이 한목소리로 대선후보 조기선출을 공약했다. 이에 따라 더민주의 차기 대선 후보 확정에는 내년 상반기 중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전 대표가 9월16일 경선에서 후보로 결정됐던 것에 비해 3개월 이상 당겨지는 것이다. 그만큼 야권내 차기 대권경쟁도 조기 접착될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주 중후반께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오는 11일 또는 12일께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 광복절 사면 대상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기 국무회의는 9일에 열린 예정이지만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작업 지연에 따라 주 후반으로 사면 결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2년 연속으로 단행되는 광복절 특사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비리 정치인을 배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인사의 경우에는 애초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사면의 배경으로 언급한 만큼 다수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으나, 재벌 총수의 잇단 사생활 스캔들로 여론이 악화했다는 점에서 사면·복권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해지고 있다.

사면과 함께 여름 정국의 최대 관심사인 개각은 시기가 다소 뒤로 밀려나는데 야권에서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박지경기자jzpark@kwangju.co.kr

HNT 하나투어

프리미엄 로드샵 광주 충장점
(동구 블로동 96-7)
문의전화 062) 228-1199

하나투어 신혼여행 박람회

허니문 박람회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리세요!

기간 : 2016. 8. 20(토) ~ 8. 21(일)

[이달의 여행지] 필리핀 하나Pack

[프리미엄 로드샵] 신혼여행 박람회 추천 하나허니문		
<p>클래식 ADW104</p> <p>커플당 최대 110만원 SAVE 발리 6일 (풀빌라)</p> <p>1,949,000원~</p> <p>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40~/선택경비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제스틱 포인트 3베드 풀빌라 매주 토/일/월 가루다항공/대한항공 24인치 대형화물용 캐리어 증정 마사지&스파3회+집비반 씨푸드 	<p>클래식 PAW401</p> <p>커플당 최대 100만원 SAVE 시드니/골드코스트 6/7일</p> <p>2,040,000원~</p> <p>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포함/선택경비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성급 호텔 매주 토/일/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호주산 양모 이불/호주산 와인 증정 1병 	<p>클래식 PFW444_C</p> <p>커플당 최대 100만원 SAVE 팔라우 6일퍼시픽리조트</p> <p>1,890,000원~</p> <p>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40~/선택경비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팔라우 퍼시픽 리조트 매주 일요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만다라 스파마사지 포함 허니문 전용 트와일라잇 라이프랜드 포함
<p>클래식 APP110</p> <p>[하나투어쇼핑] 특급 리조트 보라카이 5일</p> <p>509,000원~</p> <p>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40~/선택경비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브 스위트 리조트 (디럭스 룸) 매일 세부퍼시픽/에어아시아/필리핀항공 라바스톤 마사지 	<p>캐주얼 APP113</p> <p>2016 신규 오픈 리조트 보라카이 5일</p> <p>839,000원~</p> <p>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포함/선택경비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벤픽 리조트&스파 보라카이 매일 세부퍼시픽/에어아시아/필리핀항공 황제마사지/호핑투어/아도보 특식 	

■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정보통료, 관광진흥기부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장입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한다. ■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권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입당포 및 홈페이지 www.hanat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가의 서비스에 대한 자유형 선택관광에 참여하는데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입당포 및 홈페이지 www.hanat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속이용]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29004-1993-6 (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9층 하나투어 ■ 최소 출발전 10일 기준 / 호텔 2금호별 이상 2인 1실/고동면 항공/버스/해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객청탁/불편함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 영일 보증보험 22억 (천만원 가입) *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과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ur.com)를 참조해 주세. 해외 안전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위험 1 ● 여행 유의 ● 여행 자재 ● 필수 권고 ● 여행 금지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 www.HanaTour.com